

유엔개발과 함께한 여정: 카이로에서 뉴욕까지

가자. 아랍의 봄을 따라서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 국제정책대학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는 여름 인턴 찾기로 매우 분주하다. 어떤 이는 새롭게 단장한 유엔 본부에서의 인턴십을 희망하고, 또 어떤 이는 개발 현장에서의 값진 경험을 원한다.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역량개발, 분쟁해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많은 나는 여름방학 만큼은 꼭 현장 경험을 원했다. ‘필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가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떤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때마침 민주화가 한창인 2011년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Arab Spring)” 물결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폭력시위, 경찰의 무력진압과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중동을 떠나가는 시기였기에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반대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민주화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나의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바람이 너무나 컸고 언제나 안전 수칙을 잘 따르리라고 다짐했기에 중동 국가로 인턴십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턴십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월드뱅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기구는 무보수 원칙으로 인턴을 채용한다. 간혹 ‘공짜로 나의 노동을 제공하는데 인턴십 구하기는 쉽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먼저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관, 부서, 그리고 인턴의 역할이 원하는 시기와 딱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간절히 원하는 부서가 인턴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혹은 채용을 해도 6개월 이상 장기간 인턴만 구하는 부서도 상당수다. 둘째, 실제로 한 자리의 공식 공고에 50여 명 이상이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여름 인턴십은 전세계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복수의 기관에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 비록 무급의 인턴이지만 실무 경험을 쌓고 해당 기관의 역할을 배우고 또한 본의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유엔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기 때문이다.

나는 10여 개가 넘는 중동 지역의 유엔개발 (UNDP)과 유엔프로젝트오피스 (UNOPS)에 연락을 하였고 두 기관에서 인턴십 오퍼를 받았다. 공식 공고에 지원한 경우도 있지만 이메일을 통해 내가 일하고픈 부서의 팀장에게 직접 나의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내가 간절히 일해보기를 희망했던 이집트 유엔개발 민주화팀 (UNDP Egypt Country Office/ Democratic Governance Unit)에서 연락이 와서 주저 없이 팀장과의 전화 인터뷰 끝에 인턴십을 최종 결정하고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고대 피라미드의 도시 카이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보람찬 업무 vs. 현장의 고된 삶

아랍의 봄,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 그리고 이어지는 불안정한 치안과 경제 침체는 이집트 유엔개발 직원들을 바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민주화팀은 임시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민주화팀 팀장을 도와 이집트의 총선 및 대통령 선거 지원 프로젝트와 보안부문 개혁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일을 하였다. 특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30년 독재 이후 첫 번째 민주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기구 및 선거 전문 비영리 단체와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UNDP 뉴욕 및 제네바 본부, UNODC, USAID, IFES의 전문가 그룹과 거의 매일 미팅과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나는 시시각각 팀장이 필요한 정보를 리서치하고 선거 지원 프로젝트 문건 (Project Document)의 결과 프레임 (Result Framework)을 재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또한 6월에 열린 UNDP 민주화 포럼 개요 리포트 작성부터 선거교육 프로그램 및 과도기 정부 부정선거 케이스 스터디는 물론 보안개혁 프로젝트의 가이드 리포트 작성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유엔개발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덕분에 현지 및 본부에서 과견된 컨설턴트,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들의 의견이 프로젝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유엔개발 카이로 사무소장 주최로 유엔기구, 월드뱅크, 각 국 대사관 대표단을 소집하여 민주선거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집트의 성공적인 민주화라는 목표를 향해 바쁘게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조그만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차 오르는 뿌듯함을 만끽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피스를 벗어난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기엔 모자랄 정도로 낮설고 가끔은 두려울 때도 있었다. 타히리르 광장과 정부청사 주변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고 수많은 이집트 시민들은 길거리가 자신들의 안식처 인마냥 잠을 청하고 음식을 먹으며 군중으로 몰려다녔다. 사뭇 생김새가 다른 동양의 사내가 지나갈 때면 배고픈 아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였고 성인 남자들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민주화 혁명 과정 속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극도로 미약해졌고 관광산업이 반 토막 난 경제 침체기를 겪으며 몇몇 시민들은 폭력적으로 변해갔으며 때론 폭력 시위와 같은 위험한 치안상황으로 번지기도 해서 유엔개발의 비상안전팀은 지속적으로 이메일 및 문자 알람으로 안전 상황을 보고해 주었다. 같이 근무한 핀란드 및 프랑스 여성 인턴들은 매일 길거리에서 이집트 남성들의 성희롱을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지역 및 개발 도상국에서의 고된 생활은 어쩌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견디고 이해하고 또한 함께 짊어져야 할 숙명인듯 싶다.

이제는 뉴욕 본부로

석사과정 2년 차에는 뉴욕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 2012년 12월부터 6개월간 유엔 개발의 분쟁방지국 지식관리팀 (UNDP HQ/Bureau for 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Knowledge Management Unit)에서의 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 중 분쟁 및 재난 테마의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각 주제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보내는 일이다. 또한 본부 및 지역 사무소에서 만든 리포트 및 지식 자료 (Knowledge Product)의 분배를 지표를 이용해 분석 및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분배 전략을 짜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뉴욕 본부에서의 업무 덕분에 나는 유엔개발의 정책개발 과정 및 각 국(Bureau) 간의 업무 분담 그리고 본부, 지역 사무소, 국가 사무소 간의 업무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가슴으로는 꿈을 꾸고 머리로는 현실을 준비하자

단순히 ‘국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바칠 준비가 되었다면 그 길이 과연 나의 ‘직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진지하고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상당수의 젊은 유엔직원은 싱글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에 한번씩 포스트를 옮겨야 하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는 만큼 본인의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찾기는 더욱 더 힘들어진다. 이집트 오피스에서 만난 JPO 그리고 P-3 레벨의 30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원치 않은 싱글인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나와 함께 현장과 본부를 돌아다니며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매우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스스로에게 해보길 바란다.

둘째, 편하지 않은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나의 이집트 생활은 콩고, 말리, 파푸아뉴기니,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평안한 편이라고 한다. 일터와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전기가 없거나 차가운 물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2-3개월에 한번씩 보며 지냈다는 직원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국제 공무원의 삶은 결코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셋째, 본인의 업무 능력이 관한 문제이다. 특히 프로젝트 서류 및 관련 페이지를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기반과 작문 구사능력 그리고 동료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메일을 쓰고 팀장 및 국장에게 급작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인턴인 나에게도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최대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또한 편하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은 너무 흔한 조언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임은 분명하다.

다시 현장으로 가자!

개인적으로 국가 사무소로 나가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이집트 유엔개발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뉴욕 본부의 그것보다 훨씬 컸다. 내가 직접 프로젝트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실무자와 미팅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을 점검하는 것이 컴퓨터 앞에

서만 진행하는 리서치보다 훨씬 보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부의 전문가 직종 (P-Level)의 직원 중 현장 경험이 없는 이 또한 거의 없고 이들 모두 한 목소리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본부로 와서 일해보라고 권했다. 마치 미시경제를 공부하고서 거시경제를 접근하는 것처럼 필드 경험이 있어야 본부가 지향하는 로드맵을 그리기가 수월하다고나 할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국제기구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삶을 이어나간다. 이집트에서 만난 직원 중 하나는 자신의 지식과 쌓아온 노하우, 끈질긴 노력 덕분에 현지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불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감사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일을 계속한다고 하였다. 나 또한 대학 시절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조그만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감사표시와 해맑은 미소에 가슴 속 울림을 느꼈고, 이 아이들과 이들의 미래를 위해 프로젝트밖에 해줄 수 없는 미안함에 또 한번 가슴이 시렸다. 이 경험이 나를 국제기구에서 꿈을 펼치고 싶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나도 이 꿈의 실현을 위해 학업 및 실무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유엔개발 국가 사무소와 뉴욕 본부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과정을 담은 이 경험담이 나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제기구 진출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임과 동시에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집트 유엔개발 민주화 팀장과 함께>



<이집트 유엔개발 인턴들과 함께>



<유엔개발 뉴욕 본부 분쟁방지국 김희진 인턴과 함께>